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레 길이 있었습니다" 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시인은 두 갈레 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서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요.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나는 한 숨 지으며 이야기하겠지요. 두 갈레 길이 숲속으로 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덜 밟은 길을 택했고, 그것이 내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고."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을 매일 하고 살죠. 그리고 한 번 결정하고 나면, 다시 그 선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로버트 프로스트의 '담장 고치기'라는 시가 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이웃이 서로 봄이 되어서 돌로 된 담장을 고치고 있어요. 겨울 내내 조금씩 무너진 돌맹이들을 주워서 함께 담장을 손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떨어진 돌맹이들과 자기 쪽의 담장은 각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담장을 고치면서, 물어 봅니다. 왜 우리 이웃 사이에 담장이 필요한걸까 하고 궁금해 하면서 물어보니, 다른 편 이웃이 말하길, "담장이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지요."

그리고, 시인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담장을 싫어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담장은 항상 조금씩 허물어 진다.' 그러면서, 그 이웃의 말이 귓가를 맴돌죠. "담장이 튼튼해야 이웃 사이가 좋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담장을 만들어 놓아야 마음이 편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공간, 나만의 담장.

그렇게 우리는 담장을 만들어 놓고, 담장 안의 것과 담장 밖의 것을 구분해 놓고 삽니다. 담장을 만들어 놓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 하는 사람의 구분해 놓고, 내편인 사람과 내편이 아닌 사람을 또 구분해 놓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놓고 우리는 차별하고 삽니다.

그렇게, 튼튼한 담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과 나를 구분해 놓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종교가 서로 다른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담장 이쪽과 저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갈라진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내 고집과 편견으로 나의 담장은 점점더 튼튼해 지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단절시키고 구분해 놓은 그 담장을 허물어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라진 세상을 화해시키고 일치 시키러 오셨어요.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화해하고, 죄인과 악인들, 선한 사람들이 함께 화해하고, 인간과 하느님인 화해하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자를 미워하거나 나쁘다고 이야기 하신 적은 없어요. 단순히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부자를 싫어하고 가난한 사람만 좋아해서 하신 이야기도 아닙니다. 키 포인트는 이겁니다.

부자는 바로 옆에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담장 밖으로 몰아내고, 자기는 담장 안에서 자기만의 부를 즐기고 있는 것이죠. 그 문 앞에서 한 가난한 사람이 서 있지만, 이 부자는 그를 볼 수가 없어요. 인색하고 욕심이 많으니, 그 가난한 사람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집 대문 앞에서 거지 라자로가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도, 부자는 그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기 생활에만 빠져서, 자기 생각만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삽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자비와 나눔의 실천이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어요. 그 문은 화해와 일치의 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말에는 모든 것이 뒤바뀐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될 것이다.” 지금 잘났다고 자만하는 사람들, 지금 잘먹고 잘 산다고 좋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벌 받을 것이고, 지금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신앙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축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럼, 서로 관대하게 나눔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겸손하게 살면,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